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2016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백 수 연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김 정 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백 수 연

인 준 서

백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 내·외적 보호변인으로 설정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1세~7세의 손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조모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는 양육스트레스 단축형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손자녀 양육 특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손자녀 양육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주요변인들에서 조모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손자녀 양육 특성에 따른 일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는 모두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주효과만 유의했을 뿐,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제공을 통해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5
1. 손자녀 양육 조모.....	5
2. 양육스트레스.....	6
2.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6
2.2.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8
3. 삶의 만족도.....	9
3.1. 삶의 만족도의 개념.....	9
3.2.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10
4. 자아탄력성	12
4.1. 자아탄력성의 개념.....	12
4.2.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	14
5. 사회적 지지.....	14
5.1. 사회적 지지의 개념.....	14
5.2.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삶의 만족도.....	15
III. 연구문제 및 가설.....	17
IV.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19

2. 측정도구.....	20
2.1.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20
2.2. 자아탄력성 척도	21
2.3. 사회적 지지 척도.....	23
2.4. 생활만족도 척도	24
2.5. 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	25
3. 분석방법	25
V. 연구결과.....	27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7
2. 집단 간 측정 변인 비교.....	28
3.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32
4.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35
5.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37
VI. 논의.....	45
1. 연구 결과 요약 및 의의.....	45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51

참 고 문 헌

ABSTRACT (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21
표 2. 자아탄력성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23
표 3. 사회적지지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24
표 4. 생활만족도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25
표 5.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	27
표 6. 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차이.....	29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에 따른 차이.....	30
표 8. 측정 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34
표 9. 손자녀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36
표 10. 손자녀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38
표 11. 손자녀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도구적 지지의 조절효과.....	40
표 12. 손자녀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	42
표 13. 손자녀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4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	18
그림 2. 연구모형 2.....	18
그림 3.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39
그림 4.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도구적 지지의 조절효과.....	41
그림 5.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대리양육자로서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은주, 서영희, 2007). 조부모들은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 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탁을 수락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실제 맞벌이 가정의 31.5%가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2) 맞벌이가정이 가장 선호하는 대리양육자는 아동의 조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문정, 2007). 특히 취업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비율이 8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써, 생활사건을 통해 누적되며 양육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Abidin, 1990). 특히, 생애주기 상 비정시적(off-time)과업으로 분류되는(Jendrek, 1994; Bunch, Eastman & Griffin, 2007) 손자녀 양육은 “생애 단계에 어긋난 역할(time-disordered role)”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배진희, 1997; Jendrek, 1994). Minkler, Roe와 Price(1992)의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70%가 현재의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으나, 기분 저하 및 무기력감의 호소를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들이 심각한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오진아, 2006, 김오남, 2007;

Sands & Goldberg-Glen, 2000),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조모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00; 오진아, 2006; 김은주, 서영희 2007; Kelley et al.,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대표하는 지표이며(배진희, 2007), 낮은 삶의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으로 보고되었으나(Lazarus & Folkman, 1984; Bolger et al., 1989), 일부 연구는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보고하였다(Johnson & Sarason, 1979; Thoits, 1982). 이처럼 상충되는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만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영희, 이승신, 박미석(2010)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과 그렇지 않은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손자녀 양육에서 비롯된 즐거움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이영희 외, 2010; 정재원, 김문정, 2010; 이영숙, 박경란, 2013; 전해정, 조규영, 박민경, 한세황, 2013; Reitzes & Mutran, 2004).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모의 개인 내적, 외적 자원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손자녀 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개인차는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 buffering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의 강도는 다양한 보호요인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내적 자원과 긍정적인 사회적지지, 사회적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같은 외적 자원이 있다(Gore & Eckenrode, 1994).

최근 노년기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요한 내적특성 중 하나가 자아탄력성(Resilience)이다. 국내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Resilience를 ‘자아탄력성’ (구형모, 황순택, 2001), ‘탄력성’ (홍은숙, 2006), ‘적응 유연성’ (임성숙, 김진숙, 2009). 혹은 ‘회복력’ (김혜성, 1997)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정미경, 2010).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을 ‘발달과정 동안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성격적 특질(Block & Block, 1980)’, ‘스트레스와 삶의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적응기제(임성숙, 김진숙, 2009)’,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응능력(박원주, 이기학, 2010)’ 등으로 정의한다. 자아탄력성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자질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삶 안에서 작동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김기태, 박미진, 2005), 실제 부정적사건이나 스트레스경험은 특정집단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삶의 여정 중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연구대상을 인생후반기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임성숙, 김진숙, 2009 재인용; Crummy, 2000; Gutheil & Congress, 2000; McQuaide, 2000; Lundman, 2007)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외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연령과 인구집단을 막론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수의 연구들에서 노년기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적응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권인수, 2000; 윤승희, 2005; 이미영, 2008;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Musil, 1998; Pruchno & Mc

kenney, 2002),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을 연구하는데 사회적 지지를 포함할 것은 과거로부터 꾸준히 제안되었다(Dumont & Provost, 1990). 예를 들어, 서혜석(2005)은 조모가 타인과 동일한 문제로 이야기 나누고 상호 격려할 때 그들의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보고되었으나(김미혜, 김혜선, 2004; 이미영, 2008; 송유미, 이선자, 2011) 영유아 공동양육 조모의 사회적 지지의 종류나 측면들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어떠한 측면이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손자녀 양육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김태현, 1999) 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의 삶의 만족감 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손자녀 양육 조모

조모의 손자녀 양육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인종과 민족, 2세대 부 또는 모의 동거여부, 손자녀 동거 여부, 아동의 부모 양육 기능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양육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2세대 부모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주양육 조부모(parenting grandparents)와 공동양육(co-parenting grandparent)으로 분류하였다(Goodman, 2003). 또한 Bower와 Myers(1999)는 전일제 양육 조부모(full-time caregiver)와 시간제 양육 조부모(part-time caregiver)로 분류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자녀가족의 기능 정도를 기준으로 양육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자녀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된 전담 양육자(custodial grandparent)와 기능적인 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된 주간 양육자(day care grandparent)이다(김문정, 정재원, 2008). 전담 양육자인 조부모는 2세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어떤 양육지원도 받지 않은 채 손자녀를 돌보며 조손 가족으로 불린다. 주간양육자(김문정, 정재원, 2008) 또는 공동양육 조부모(배진희, 2007)는 손자녀의 부모가 조부모의 양육활동을 돕거나 양육비를 지원한다. 모든 유형의 공통점은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나, 손자녀 양육 형태에 따라 조부모가 경험하는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2005)의 조사에 의하면, 6세 이하 아동의 40% 이상을 조부모가 돌보고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5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손자녀의 부모들은 편의대로 시간 조정이 가능해서 조부모를 양육자로 선택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원, 2012), 동거하지는 않더라도 자녀 양육을 조모에게 의존하기 위해 부모 및 시부모와 함께 살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정경희, 2002). 이은영(2006)은 취업모 자녀를 둔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업모 출퇴근형’, ‘조모 출퇴근형’, ‘주말 부모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조부모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경우였다(최해경, 2002; 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송유미, 이선자, 2011). 공동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이지연 외, 2009; Musil, 1998).

2. 양육스트레스

2.1.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신장애의 원인으로 부각되며 의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Selye(1956)가 ‘The Stress of Life’를 발표한 이후 스트레스 연구는 생리학, 병리학, 정신의학 등 거의 모든 의학 분야와 심리, 사회, 경영 등의 학문 분야에서 수많은 논문과 저서로 출판되었고 스트레스학(stressology)이라는 학문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Hamilton & Waburton, 1979).

스트레스를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stimulus-based model of stre

ss),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response-based model of stress),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transactional-based model of stress)로 구분하였다(Lazarus & Folkman, 1984). 이 중에서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델(transactional-based model of stress)은 앞의 두 모델을 통합하여 발전시킨 모델로서 스트레스 요인(stressors)에 대한 개인의 인지 과정과 정신적 심리과정을 강조한다. 이처럼 외적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의 불균형을 스트레스로 정의할 때, 자녀로 인한 환경적 변화는 양육자에게 특정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요구하거나 한계를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환경과 개인 간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하였다. 즉, 스트레스 인자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인자를 자신에게 위협적이라고 지각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bidin(1982)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개념화했는데, 크게 아동의 행동 특성, ‘부모 됨’에 대한 자각,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구성되며 이 하위영역들이 양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체감 정도는 개인 성격이나 성향,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특성 외에도 부모 자신의 특성이 스트레스 자각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가족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숙재, 정문자, 1998). 즉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장기간 지속되면 부모-아동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가족관계의 기능장애와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처럼 외적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의 불균형을 스트레스로 정의할 때, 자녀로 인한 환경적 변화는 양육자에게 특정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2.2.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면서 조부모들은 손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특히, 실질적인 대리 양육자로서 조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노미혜, 1992; 옥선화, 정민자, 1993) 조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녀의 부모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개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윤승희,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구체적 상황 하에 발생하며,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고성혜, 1994),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김기현, 강희경, 1997)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며, 부모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

손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이며, 임숙빈과 정철순(2002)의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이는 개인의 적응 및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손자녀 양육이 조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담감을 과증시켜 조모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대리양육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조모들은 양육하지 않는 조모들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고(Kelley & Damato, 1995),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다(오진아, 2006).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조모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편이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삶의 만족도

3.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일생에 관하여 만족스러운 정도를 평가하는 것(Havighurst, 1968)으로써 물질 및 정신적 생의 목표, 혹은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에는 “좋은 삶”의 객관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는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저하되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현재의 삶에 있어 주관적인 인지에 따른 행복과 직접 연결되며 노인의 삶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노년기 삶의 질의 보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성공적 노화와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조성자, 2011).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인지, 환경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건강이나 질병,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요인이 있고, 인지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우울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지지, 경제적 상태,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 인구학적 측면에서 연령, 교육정도가 있다(조성자, 김병석 2014).

삶의 만족도는 양육을 하는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중요한 지표로 보고된다(배진희, 2007). 김미영(2000)은 손자녀의 돌봄기간을 1년 이하, 1년~3년, 3년~6년, 6년 이상의 4집단으로 구분하고 조모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는 양육기간이 길수록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재원, 김문정(2010)의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은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란 조모가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신체적·환경적 조건 속에서 느끼는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3.2.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조모의 손자녀 양육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설명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생애경로적 관점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 사회마다 합의되어진 사회적 시간표와 일련의 순서에 의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결정되어 있다(Neugarten, Moore, & Lowe, 1965). 사회적 시간표에 따르면, 노년기는 부양을 제공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 조모는 자신이 노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양

의 대상이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손자녀의 양육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조모의 역할은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측면과 역할집합이 시간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시간에 어긋난 역할(time-disordered role)이다. Burton(1995)은 생애 경로적 관점에 근거하여 노년기 손자녀 양육의 역할수행은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정시적(on-time)역할이 아닌, 그것에서 벗어난 비정시적(off-time) 역할로서 조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Seltzer(1976)는 양육의 업무가 그들의 생활주기에서 벗어난(off-time) 것으로 인식될 때,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Fuller-Thomson(1997)은 각 시기에 맞지 않은 사건은 잠재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 적용해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수행은 노년기에 진행되는 노화와 함께 손자녀 양육이라는 시간에 어긋난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독특성과 취약성을 함께 지니게 되어(김미혜, 김혜선, 2004),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는 그렇지 않은 조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모에게 낮은 삶의 만족을 초래함으로써, 결정적으로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진, 2004; 배진희, 2007; Bowers & Myers, 1999; Musil & Ahmad, 2002). Kelley 등(2000)은 손자녀 양육 조모들은 비양육 조모들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겪고 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모든 조모들이 손자녀 양육을 스트레스적인 상황으로 여기지 않는

다. 예를 들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과 그렇지 않은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손자녀 양육에서 비롯된 즐거움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이영희 외, 2010; 정재원, 김문정, 2010; 이영숙, 박경란, 2013; 전해정, 조규영, 박민경, 한세황, 2013; Reitzes & Mutran, 2004). 이렇듯 상충된 연구결과들은 공동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자아탄력성

4.1. 자아탄력성의 개념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스트레스와 삶의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기제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임성숙, 김진숙, 2009).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변화와 불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Wagnild & Young, 1990; Olsson et al., 2003), ‘적응과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역경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유능성을 이루는 것’ (Masten & Coatsworth, 1998),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적응을 성취하는 역동적인 과정’ (Luthar et al., 2000), ‘불행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는 적응수준’ (강석기, 백옥현, 2006)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된다. 이렇듯 아직까지 자아탄력성의 개념이 일관적이지 않지만 개념들을 통합하여 보면,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심각한 위협이나 역경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위협과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특정 문화나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발달적 과업과 사회적 기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적응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미경, 2010).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삶의 역경이 인간에게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기존의 스트레스 및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Lazarus, 2000).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견해와 시각에 따라 결과중심의 연구(Garmezy, 1993)와 과정중심의 연구(Luttar, Cicchetti, & Becker, 2000; 김기태, 박미진, 2005; 최정민, 2010)로 나누거나, 발달적 관점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다. 개인의 성격적인 성향의 적응결과로 보는 결과중심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개념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능성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개인과 보호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보는 과정중심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위험요인과 결과요인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전체적인 적응과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정미경, 2010; Olsson et al., 2003). 발달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삶의 역경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킴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삶을 지속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자아탄력성은 발달과정 중 특별한 대상이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자질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Crummy, 2000; Lundaman, 2007)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Bonanno (2004)는 자아탄력성을 특정한 상실이나 외상에 대한 탄력적인 반응으로 기술하며, ‘산발적이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비교적 안정되고 건강한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성인들의 능력’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의 자아탄력성 연구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조은향, 2009), 노인(조혜숙, 2013)의 연구에까지 확대되었고, 스트레스와 삶의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적응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임성숙, 김진숙, 2009).

4.2.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

Peikes(2000)는 노인이 생애 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연구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현재 삶의 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조사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임성숙, 김진숙, 2009; 정미경, 2010; 손미숙, 2012; 이경숙, 김병석, 2013; 조혜숙, 2013; 이정은, 2014; 문희, 김지영, 2015; 전영자 2015). 그러나 노년기의 위험변인과 결과변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김숙향, 황경란(2016)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 거의 전부인 실정이다. 더욱이 공동양육 조모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문희, 김지영(2015)의 양육 조모의 속박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충효과를 갖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5. 사회적 지지

5.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심리학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보

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로써 위기 시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한미현(1996)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로 정의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정서적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의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유형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도구적 지지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필요로 하는 물질적, 인력적 지원이며, 정보적 지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정서적 지지는 조모가 주위사람들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고, 양육의 어려움을 공감 받고, 양육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 격려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5.2.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부적응에 완충역할을 하며 (Cobb, 1976; House, 1981),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박경민(1994)은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 스트레스와 신체증상을 예방하고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Krause(1997)는 사회적 지지망이 노인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삶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외적 차원으로도 보고되었으며 (Sandler & Lakey, 1982),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모들에게도 중요한 보호 요인이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조모들을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며 높은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Kelley, Whitley, Sipe, & Yorker, 2000; Sands & Goldberg-Glen, 2000). 그러나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는 공동양육조모의 사회적 지지의 종류나 측면들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어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1-1.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1-2.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1-3.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되는가?

가설2-1.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2-2.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문제 2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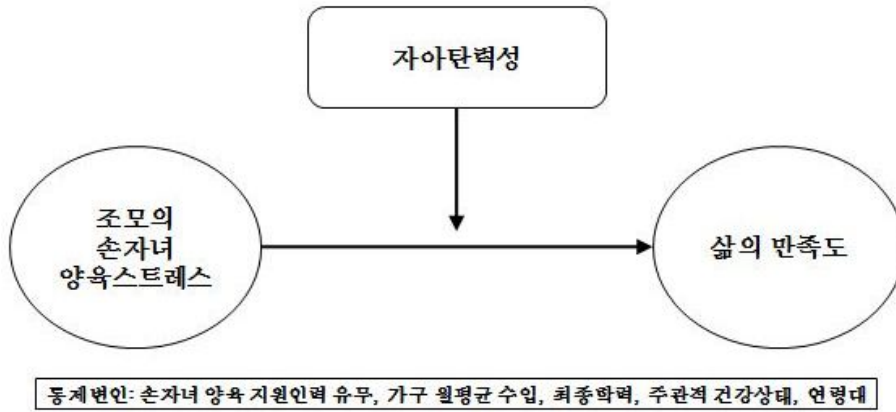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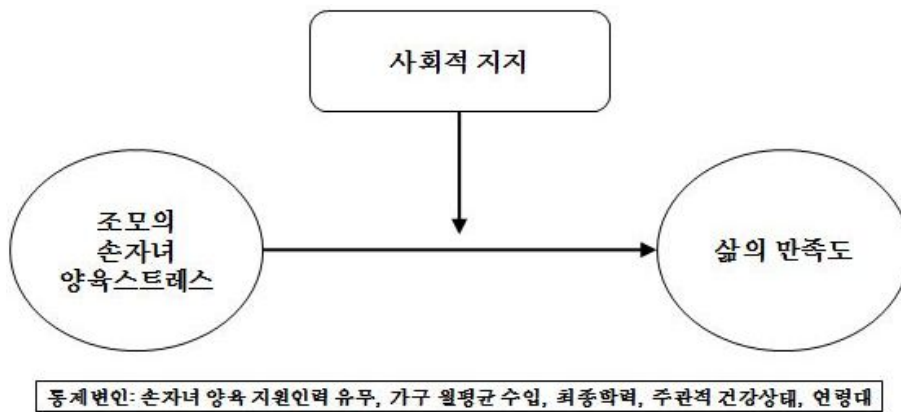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통계청(2005)의 조사에 의하면, 6세 이하 아동의 40% 이상을 조부모가 돌보고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5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자녀세대의 지원을 받아 1세~7세의 영유아 손자녀를 공동양육하는 50대~70대의 조모이다. 손자녀 양육은 1주일 중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본 경우로 정의한다.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손가정은 제외한다.

표집은 설문지 배부 및 수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생활권을 둔 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참여자들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사례품으로 주방용품을 지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지인들의 모를 비롯하여 중·대형교회 여전도회 두 곳과 어린이집 두 곳, 놀이터, 보건소, 청소년 수련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은 자기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15분~30분이 소요되었다.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조모에게는 연구자가 질문지 내용을 읽어 주고 응답을 대신 기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거된 151명의 설문응답 가운데 조손가정인 경우, 손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인 경우, 척도 미응답률이 전체 설문의 10%인 경우를 초과한 경우, 설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1줄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1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140명

의 설문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2.1.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손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5)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정경미 등 (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K-PSI-SF)을 사용하였다. PSI-SF는 아동의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국내외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적용된 바 있다(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양소정, 2009; Harrison, Richman, & Vittimberga, 2000; Leder, Grinstead, & Torres, 2007). 양육스트레스 축약형은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까다로운 아동(12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측정하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적합하게 ‘우리 아이는’을 ‘손자녀를’로 바꾸어 사용 하였다. 정경미 등(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sim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며, 각 문항 구성 및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다.

표 1.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모의 고통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83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9
까다로운 아동	12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85
전체	36	1 - 36	.90

2.2. 자아탄력성 척도

노인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RS)' 를 사용하였다. RS척도는 주요한 위기생활사건의 경험에도 성공적인 적응을 보인 노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해외에서는 RS척도를 이용한 자아탄력성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고(Ahern, Kiehl, Sole, & Byers, 2006), 많은 국외 연구들을 통해 RS척도가 모든 연령층과 민족 집단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으나(Ahern et al., 2006),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노인의 자아탄력성 연구에 본 척도가 활용된 경우는 정미경, 이규미(2010), 손미숙(2012)의 연구가 있다.

RS척도는 적응유연성의 특성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신뢰(self-reliance)' 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둘째 '삶의 의미(meaning)' 로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 셋째 '평정(equanimity)' 으로 개인의 삶과 경험을 균형 있게 보는 관점, 넷째 '인내

(perseverance)’ 로 역경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지속시키는 능력, 다섯째 ‘독립적 존재(existential aloneness)’ 로 각 개인의 인생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RS척도는 앞서 정의한 5가지 특성에 대해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종종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이 적은 척도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RS척도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5문항 중 14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RS-14척도가 제작되었다. Wagnild(2011)는 RS척도와 RS-14척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내적 구성 타당도도 높아서 RS-14척도를 사용하여 자아탄력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S-14척도를 사용하여 조모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신뢰’ (5문항), ‘삶의 의미’ (3문항), ‘평정’ 2개(3, 10번), ‘인내’ 2개(6, 8번), ‘독립적 존재’ 2개(4, 11번), 의 5개 하위척도로 측정하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14점에서 9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며, 각 문항 구성 및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탄력성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기신뢰	5	1, 5, 7, 12, 14	.82
삶의 의미	3	2, 9, 13	.53
평정	2	3, 10	.72
인내	2	6, 8	.70
독립적 존재	2	4, 11	.61
전체	14	1 - 14	.92

2.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가원(2002)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주위사람들(배우자, 자녀, 이웃 등)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에 대한 편모의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한다. 도구적 지지(4문항), 정보적 지지(2문항), 정서적 지지(4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지지 문항은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필요로 하는 물질적, 인력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적 지지 문항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원 문항은 조모가 주위사람들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고, 양육의 어려움을 공감 받고, 양육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 격려를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가 손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가원(2002)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며, 각 문항 구성 및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도구적 지지	4	1, 2, 3, 4	.86
정보적 지지	2	5, 6	.90
정서적 지지	4	7, 8, 9, 10	.91
전체	10	1 - 10	.93

2.4. 생활만족도 척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윤진(1982)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ozma와 Stones(1980)가 노인 정신 건강과 관련된 개념인 생활 만족, 사기, 행복 등으로 구성하여 제작한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for Happiness(MUNSH)척도에 기초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긍정적 정서(4문항), 부정적 정서(4문항), 긍정적 일상경험(6문항), 부정적 일상경험(6문항)의 4개 하위척도로 측정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니다'의 0점에서 '그렇다'의 2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배점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기우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가 $r =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며, 각 문항 구성 및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표 4와 같다.

표 4. 생활만족도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긍정적 정서	4	1, 2, 5, 8	.72
부정적 정서	4	3*, 4*, 6*, 7*	.75
긍정적 일상 경험	6	9, 10, 12, 13, 16, 17	.73
부정적 일상 경험	6	11*, 14*, 15*, 18*, 19*, 20*	.75
전체	20	1 - 20	.88

*는 역채점 문항임.

2.5. 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양육 특성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월평균 수입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양육 특성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인력의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세대의 도움을 받아 1세~7세의 손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조모 140명이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손자녀 양육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N=140)

특성	구분	사례 수(N)	백분율(%)
연령대	53세~60세 미만	73	52.1
	60세~70세 미만	57	40.7
	70세 이상	10	7.1
최종학력	무학	0	0
	초등학교 졸업	4	2.9
	중학교 졸업	32	22.9
	고등학교 졸업	66	47.1
	전문대학 이상 졸업	38	27.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 편	46	32.9
	보통	80	57.1
	좋은 편	12	8.6
	무응답	2	(1.4)
	100만원 미만	21	15.0

	100~200만원 미만	37	26.4
가구	200~300만원 미만	40	28.6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	15	10.7
수입	400만원 이상	25	17.9
	무응답	2	(1.4)
지원인력	있음	67	47.9
유무	없음	73	52.1

연령대는 50대(52.1%), 60대(40.7%), 70대 이상(7.1%)의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60세($SD=5.7$)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7.1%), 전문대학 이상 졸업(27.1%), 중학교 졸업(22.9%), 초등학교 졸업(2.9%) 순으로 많았다.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순서대로 보통(57.1%), 나쁜 편(32.9%), 좋은 편(8.6%)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28.6%)이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26.4%)과 400만원 이상(17.9%), 100만원 미만(15.0%), 300~400만원 미만(10.7%) 순으로 많았다. 조모의 손자녀 양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존재하는 경우(47.9%)보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52.1%)가 더 많았다.

2. 집단 간 측정 변인 비교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가 양육 특성인 손자녀 양육지원인력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모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대,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 특성인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인력의 존재 유무에 따른 측정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N=140)

변인	지원인력 유 (N=67)	지원인력 무 (N=73)	<i>t</i>
	M(SD)	M(SD)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2.20(0.56)	2.32(0.46)	1.44
자아탄력성	5.15(1.19)	4.60(0.96)	3.07***
도구적 지지	3.71(0.94)	2.97(0.72)	5.02***
사회적 정보적 지지	3.95(0.98)	3.18(0.99)	4.62***
지지 정서적 지지	4.10(0.88)	3.59(0.94)	4.23**
전체	3.91(0.83)	3.26(0.74)	5.09***
삶의 만족도	1.33(0.41)	1.09(0.32)	3.92***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손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M=2.20$, $SD=0.56$)보다 지원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M=2.32$, $SD=0.46$)에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은 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t=3.07$, $p < .001$),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M=5.15$, $SD=1.19$)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M=4.60$, $SD=0.96$)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전체와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는 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07, p<.001$).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M=5.15, SD=1.19$)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M=4.60, SD=0.96$)보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는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M=3.71, SD=0.94$)에 지원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M=2.97, SD=0.72$)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적 지지는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M=3.95, SD=0.98$)에 지원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M=3.18, SD=0.9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도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M=4.10, SD=0.88$)에 지원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M=3.59, SD=0.9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도 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t=3.92, p<.001$),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M=1.33, SD=0.41$)에 지원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M=1.09, SD=0.32$)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모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대,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월평균 수입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Scheffé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에 따른 차이(N=140)

종속변수	요인	항목	N	M	SD	F	Scheffé
양육 스트레스	수입	100만원 미만(a)	21	2.32	0.31	5.55*	e>b
		100~200만원 미만(b)	37	2.52	0.52		
		200~300만원 미만(c)	40	2.23	0.56		
		300~400만원 미만(d)	15	2.16	0.42		

		400만원 이상(e)	25	1.95	0.44		
		총계	138	2.26	0.52		
자아 탄력성	최종 학력	초졸(a)	4	3.97	0.22		
		중졸(b)	32	4.98	1.02		
		고졸(c)	66	4.58	1.04	5.39***	d>c
		전문대 이상 졸(d)	38	5.35	1.15		
		총계	140	4.86	1.11		
사회적 지지	최종 학력	초졸(a)	4	3.35	0.40		
		중졸(b)	30	3.49	0.76		
		고졸(c)	66	3.43	0.77	3.15*	d>c
		전문대 이상 졸(d)	38	3.92	0.99		
		총계	138	3.58	0.85		
생활 만족도	월 소득	100만원 미만(a)	21	1.05	0.28		
		100~200만원 미만(b)	37	1.06	0.38		
		200~300만원 미만(c)	40	1.24	0.35	6.54***	e>b, a
		300~400만원 미만(d)	15	1.32	0.40		
		400만원 이상(e)	25	1.47	0.36		
		총계	138	1.21	0.38		
최종 학력	최종 학력	초졸(a)	4	0.98	0.15		
		중졸(b)	32	1.15	0.30		
		고졸(c)	66	1.11	0.38	6.72***	d>b,c
		전문대 이상 졸(d)	38	1.43	0.39		
		총계	140	1.21	0.39		

* $p<.05$, ** $p<.01$, *** $p<.001$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조모의 가구 월평균 수입의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가구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은 조모의 최종학력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최종학력이 고졸에 비하여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사회적 지지도 조모의 최종학력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고졸에 비하여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조모의 가구 월평균 수입의 정도와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그리고 최종학력은 중졸과 고졸 보다 전문대 이상 졸업인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3.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및 각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r=-.63, p<.001$)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r=-.57, p<.00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r=-.49, p<.001$), 까다로운 아동($r=-.45, p<.001$) 순으로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r=.56, p<.001$)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r=.00, p<.01$)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r=.57, p<.001$)가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도구적 지지 ($r=.50, p<.001$), 정보적 지지 ($r=.21, p<.05$) 순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r=.10$ 은 약한 상관, $r=.30$ 은 중간 상관, $r=.50$ 은 강한 상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Cohen, 1992)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전체 변인과 삶의 만족도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도구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강한 상관을 보였고, 정보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다소 약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는 경우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므로 (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변인 모두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면,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 1-2, 1-3은 모두 지지되었다.

표 8. 측정 변인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140)

	1	1-1	1-2	1-3	2	3	3-1	3-2	3-3	4
1. 양육스트레스	-									
1-1. 부모의 고통	.83***	-								
1-2.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75***	.45***	-							
1-3. 까다로운아동	.81***	.49***	.42***	-						
2. 자아탄력성	-.38***	-.37***	-.37***	-.15	-					
3. 사회적 지지	-.46***	-.30***	-.42***	-.38***	.43***	-				
3-1. 도구적 지지	-.44***	-.31***	-.39***	-.36***	.41***	.88***	-			
3-2. 정보적 지지	-.31***	-.16	-.29***	-.30***	.29***	.83***	.63***	-		
3-3. 정서적 지지	-.41***	-.28**	-.39***	-.33***	.40***	.90***	.65***	.67***	-	
4. 생활 만족도	-.63***	-.57***	-.49***	-.45***	.56***	.53***	.50***	.21*	.57***	-
평균(M)	2.26	2.54	1.98	2.28	4.86	3.56	3.34	3.68	3.71	1.21
표준편차(SD)	.51	.72	.56	.64	1.11	.85	.92	1.04	.96	.39
왜도	.49	.24	.43	.52	-.30	-.10	-.04	-.53	-.25	.17
첨도	.62	.46	-.39	.06	.04	-.79	-.58	-.28	-.95	-.49

* $p < .05$, ** $p < .01$, *** $p < .001$

3.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점수에서 각 변인의 평균을 뺀 편차점수를 만드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작업을 거쳤다. 예측변인의 평균중심화 값과 조절변인의 평균중심화 값을 곱하여 생성한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손자녀를 공동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인력 유무, 월소득,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들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3단계에서 잠정적 조절변인인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손자녀 양육스트레스*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0.6이상, 상승변량(VIF)은 2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단계($F=13.53, p<.001$), 2단계($F=31.91, p<.001$), 3단계($F=34.18, p<.001$), 4단계($F=29.12,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지원인력 유무, 최종학력, 가구 월평균 수입은 삶의 만족도의 23%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 투입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beta=-.54, p<.0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 투입된 조절변인인 자아탄력성($\beta=.31, p<.001$)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

의 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4단계에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 ($\beta = -.09, p < .ns$)을 투입했을 때, R^2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자아탄력성의 영향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의 수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1의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기각되었다.

표 9.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N=140$)

준거변인: 삶의 만족도								
단계	예측변인	<i>B</i>	<i>SE</i>	β	<i>t</i>	R^2	ΔR^2	<i>F</i>
1	인구통계 변인					.23		13.53***
2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41	.05	-.54	-0.20***	.49	.26	31.91***
3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34 .11	.05 .02	-.45 .31	-7.04*** 4.77***	.56	.08	34.18***
4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양육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34 .11 -.06	.05 .02 .04	-.45 .31 -.09	-7.06*** 4.83*** -1.49	.57	.01	29.12***

* $p < .05$, ** $p < .01$, *** $p < .001$

4.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손자녀를 공동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인력 유무, 월소득,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들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3단계에서 잠정적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손자녀 양육스트레스*사회적 지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0.6이상, 상승변량(VIF)은 2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단계($F=13.53, p<.001$), 2단계($F=31.91, p<.001$), 3단계($F=29.05, p<.001$), 4단계($F=25.74,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지원인력 유무, 월소득, 학력은 삶의 만족도의 23%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 투입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beta = -.54, p<.0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 투입된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beta = .10, p<.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4단계에 투입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eta = -.12, p<.05$)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으로 인해 삶

의 만족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2의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표 10.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140)

		준거변인: 삶의 만족도						
단계	예측변인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1	인구통계 변인					.23		13.53***
2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41	.05	-.54	-8.20***	.49	.26	31.91***
3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34 .10	.05 .03	-.45 .23	-6.36*** 3.10**	.52	.03	29.05***
4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35 .11 -.12	.05 .03 .06	-.47 .24 -.14	-6.65*** 3.31** -2.22*	.54	.02	25.7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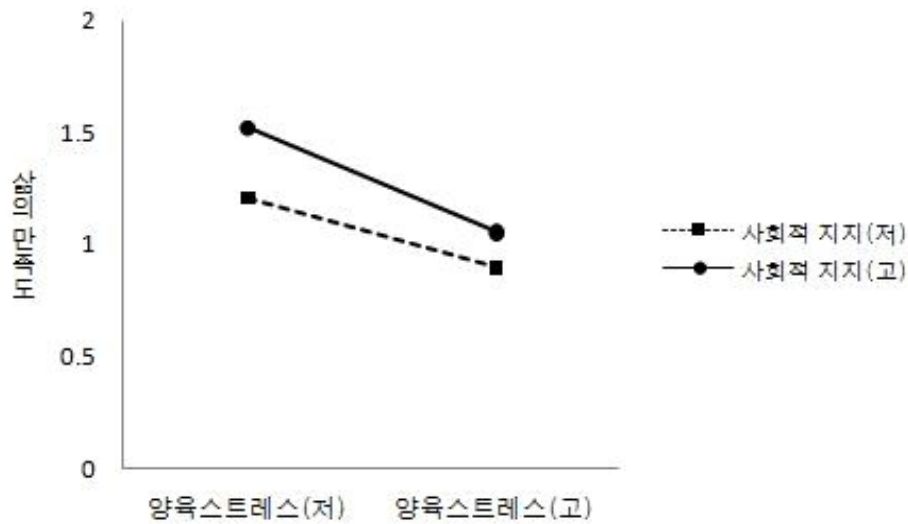


그림 3.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앞서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 전체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전체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항목을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송유미, 이선자,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들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예측변인,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예측변인*조절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도구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0.6이상, 상승변량(VIF)은 2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단계($F=13.53, p<.001$), 2단계($F=31.91, p<.001$), 3단계($F=27.83, p<.001$), 4단계($F=21.54,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지원인력 유무, 월소득, 학력은 삶의 만족도의 23%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 투입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beta = -.54, p<.0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 투입된 조절변인인 도구적 지지($\beta = .19, p<.05$)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4단계에 투입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도구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eta = -.14, p<.01$)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결과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도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4>과 같다.

표 11.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도구적 지지의 조절효과 ($N=140$)

준거변인: 삶의 만족도								
단계	예측변인	B	SE	β	t	R^2	ΔR^2	F
1	인구통계 변인					.23		13.53***
2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41	.05	-.54	-8.20***	.49	.26	31.91***
3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35	.05	-.47	-6.68***	.51	.02	27.83***

도구적 지지	.08	.03	.19	2.53*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37	.05	-.48	-7.10***			
4 도구적 지지	.10	.03	.22	3.05**	.54	.03	25.87***
양육스트레스 × 도구적 지지	-.14	.05	-.18	-2.9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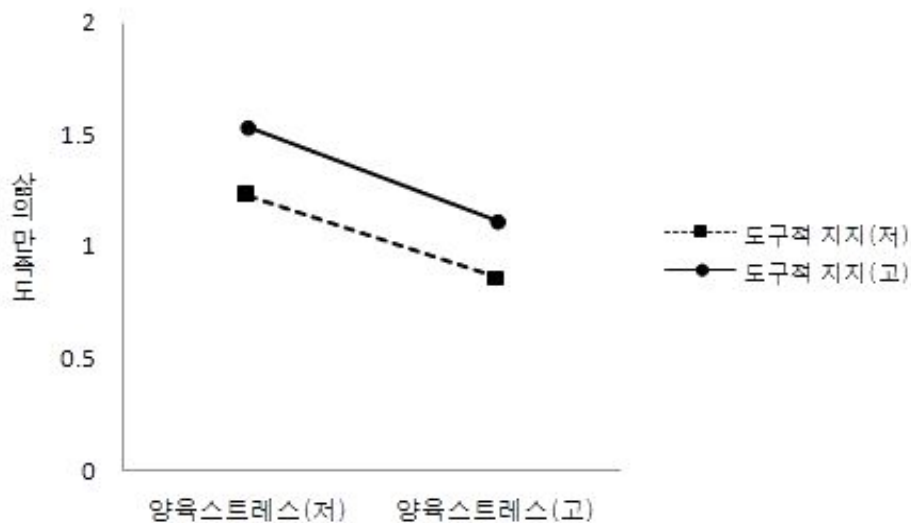


그림 4.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도구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0.6이상, 상승변량(VIF)은 2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단계 ($F=13.53$, $p < .001$), 2단계 ($F=31.91$, $p < .001$), 3단계 ($F=25.53$, $p < .001$), 4단계 ($F=21.54$, $p < .001$)

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지원인력 유무, 월소득, 학력은 삶의 만족도의 23%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 투입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beta = -.54, p < .0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3단계에서 잠정적 조절변인인 정보적 지지를 투입했을 때, 2단계에서 3단계에서의 R^2 의 변화량이 0%로 조절변인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 ($N=140$)

		준거변인: 삶의 만족도						
단계	예측변인	B	SE	β	t	R^2	ΔR^2	F
1	인구통계 변인					.23		13.53***
2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41	.05	-.54	-8.20***	.49	.26	31.91***
3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정보적 지지	-.42 -.02	.05 .03	-.55 -.05	-8.06*** -0.71	.49	.00	25.53***
4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도구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정보적 지지	-.43 -.02 -.06	.05 .03 .05	-.57 -.05 -.07	-8.14*** -0.71 -1.14	.49	.00	21.54***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13과 같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0.6이상, 상승변량(VIF)은 2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단계 ($F=13.53, p<.001$), 2단계 ($F=31.91, p<.001$), 3단계 ($F=34.31, p<.001$), 4단계 ($F=29.94,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지원인력 유무, 가구 월평균 수입, 최종학력은 삶의 만족도의 23%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 투입된 예측변인인 손자녀 양육스트레스($\beta=-.54, p<.0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 투입된 조절변인인 정서적 지지($\beta=.32, p<.01$)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4단계에 투입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eta=-.12, p<.05$)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삶의 만족도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지지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5>과 같다.

표 13.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N=140$)

준거변인: 삶의 만족도								
단계	예측변인	B	SE	β	t	R^2	ΔR^2	F
1	인구통계 변인					.23		13.53***
2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41	.05	-.54	-8.20***	.49	.26	31.91***
3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정서적 지지	-.32 .13	.05 .03	-.42 .32	-6.39*** 4.80**	.56	.07	34.31***

인구통계 변인							
	양육스트레스	-.32	.05	-.43	-6.51***		
4	정서적 지지	.14	.03	-.34	5.11**	.58	.02
	양육스트레스 × 정서적 지지	-.10	.05	-.12	-2.0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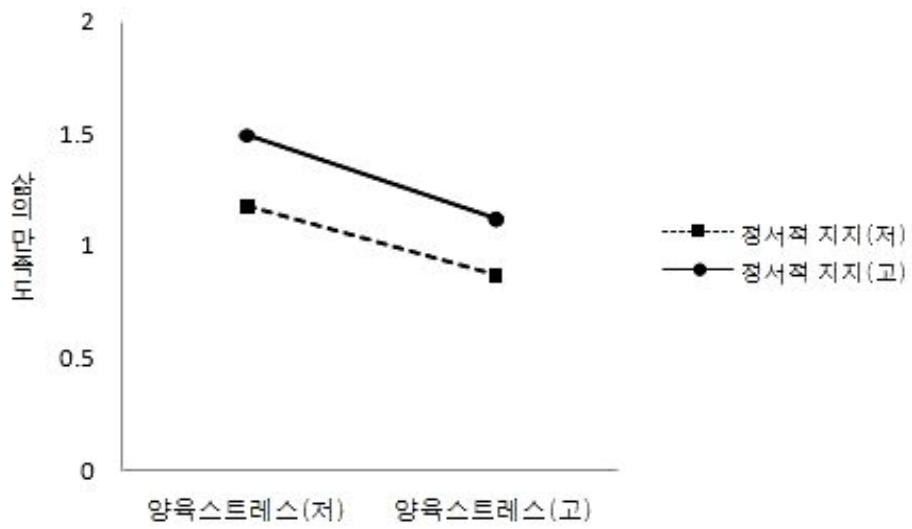


그림 5.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VI.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의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조모들의 삶의 만족감 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밝혀보았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어떠한 측면이 완충효과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지지 별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 하며 자녀세대의 지원을 받아 1~7세의 손자녀를 공동양육하는 조모 140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36문항), 자아탄력성 척도(14문항), 사회적지지 척도(10문항), 생활만족도 척도(20문항), 일반적 특성 및 양육 특성에 관한 문항(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조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모들의 평균연령은 60세($SD=5.7$)로 선행연구의 62.4세(김은정, 2012), 60.5세(김문정, 2007)와 비슷한 수준이며 주로 여성 예비노인들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수입은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편이었으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74.2%로 선행연구들의 49.2%(김은정, 2012), 34.6%(오진아, 200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에 65.7%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조모들이 본인의 건강을 양호한 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손자녀 양육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손자녀 양육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손자녀양육의 지원인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원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조모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조모가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최인희, 2014)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조모의 연령대, 가구 월평균 수입,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조모의 연령대에 따른 측정변인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노인의 연령이 손자녀 양육 부담이나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Palmore & Kivett, 1977; Szinovacz et al., 1999; 김미혜, 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최해경, 2006)와 일치한다.

조모의 가구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모의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성현정, 2008)와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이 삶의 만족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배진희, 2007; 최영, 차승연, 2013)과 일치한다.

최종학력에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각각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고학력일수록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최영, 차승연, 2013; 이정은,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소득이나 생활수준, 경제활동 등과 같은 관련변인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건강이 위험한 편이고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종숙, 1987; 윤현희, 1994)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조모 65.7%가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모들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손자녀 양육을 하며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주위에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이현수, 2007). 즉, 조모들의 심리적 특성 상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설문 응답 시 ‘허위 부정(false negative)’의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1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가정한 가설 1-1이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미혜, 김혜선, 2004)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가정한 가설 1-2가 지지되었으며, 최서규(2014)의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질이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가정한 가설 1-3 또한 지지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순으로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이화진(2012)의 손자녀 양육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중 친구와 이웃의 지지가 높으면 우울의 정도가 낮은 상관성을 보여준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넷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문제와 연결시키자면, 가설 2-1에서 언급한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충작용을 일으키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넷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할 것을 예측한 연구문제 2의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다섯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적 지지를 제외하고,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는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유미, 이선자(2011)의 연구에서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손자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조모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구적 지지와 관련하여 자녀세대 또는 지역사회에서 조모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손자녀 양육 지원 기관 및 인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손자녀 양육이 경제적 보상을 기대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호 호혜성의 원리 및 사랑에 바탕을 두고 행해진다고 주장하는 이타주의 관점(Becker, 1974)에서 이해되어왔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육아정책 연구소(2015)의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의 양육시간은 평균 주당 42.53시간으로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타주의 관점으로 손자녀 양육을 조모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정당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주관적인 안녕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조윤주, 2006)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조모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최인희, 2014)는 손자녀 양육 조모들에게 도구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별로 나누어 개입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대표적인 것은 조모의 가족이다. 여성노인들에게 있어 손자녀 양육을 통해 가족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며(정순돌, 2007),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바라는 것은 지치고 힘들 때 가족들의 정서적 위로와 건강을 챙겨주는 마음이다(백선정, 고지영, 양정선, 백현식, 2011). 따라서 가족들은 일상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신뢰와 관심을 제공하여 조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관계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미 자녀세대의 가족 내에서 양육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조모가 비자발적으로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편인 조부는 지지체계인 동시에 조모가 수발해야 할 또 다른 돌봄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김은주, 서영희, 2007). 그리고 자녀와는 세대차이로 인해 부모역할과 양육방식에 대한 서로 상충된 견해로 갈등을 겪곤 하여(김문정, 2007; 김승용 정미경, 2006) 가족들의 지원은 한계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이웃이 훌륭한 정서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은정(2012)의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중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만이 우울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비슷한 영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가까운 이웃의 동료 양육자들이나 조모들의 정서적 지지가 오히려 가족 내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보다 조모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이웃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모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웃의 여성노인들을 만나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내·외적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개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 내적인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자아탄력성은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충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외적인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요인인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보호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손자녀 공동양육 조모에게 경제적 및 인력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들이 조모에 대한 지지와 감사의 표현을 도울 수 있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웃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과의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회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로부터 접근이 수월한 지인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가 주로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조모들로 편중되어있어 연구의 타당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거주 지역을 폭넓게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척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의 높은 연령을 고려하여 문항 수가 적은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연구 참여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손자녀와 함께 기관에 방문하였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모의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며 동시에 설문지에 응답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특수 상황을 반영하여, 대상층에게 실시하기 적합한 설문조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이다. 조모의 특성에 따라 현상학적으로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경험 및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 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손자녀 양육조모를 대상으로 심층적 면담을 활용하는 탐색적인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질적 연구를 통해 조모의 내적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조모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심리적 보호기제를 발굴할 수 있어 개입방안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강석기, 백옥현 (2006).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구조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8(2), 49-68.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구형모, 황순택 (2001). CCQ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345-358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 61-76.
- 김기태, 박미진 (2005). 여성 노인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29, 71-90.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60.
- 김문정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914-923.
- 김문정, 정재원 (2008).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주간양육 할머니를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6-65.
- 김문정 (2011). 자녀와의 친밀감이 공동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54, 413-430.
- 김미영 (2000).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 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 153-170.
- 김숙향, 황경란 (2016).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63-273.
- 김승용,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오남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 **16**, 59-84.
- 김은정 (2012). 영유아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련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72**, 179-203.
- 김은주, 서영희 (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김종숙 (1987).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1999).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9**, 79-96.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85-117.
- 김혜성 (1997). **회복력[Resilience]개념 개발: 혼종모형의 적용**.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미혜 (1992). **여성의 취업 실태 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문희, 김지영 (2015). 양육 조모의 속박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 **한국노년학**, **35**(3), 553-567.
- 박경민 (199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원주, 이기학 (2010).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2), 795-808.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백선정, 고지영, 양정선, 백현식 (2011). 맞벌이 가정내 조부모의 양육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영아 가정을 중심으로.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서혜석 (2005).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0(3), 61-81.
- 성현정 (2008). **손자녀 대리양육 수행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미숙 (2012). **노인의 생활스트레스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유미, 이선자 (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31(3), 795-811.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양소정 (2009).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3), 368-376.
-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 옥선화, 정민자 (1993).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육아정책연구소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 윤승희 (2005). **조부모 가구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전북지역 조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26-30.
- 윤현희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 이경숙, 김병석 (2013). 노인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783-2797.
- 이미영 (2008).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4(4), 327-353.
-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영숙, 박경란 (2013). 발표논문: <아동, 가정> 성공적 노화에 대한 청년과

- 후기중년의 인식 비교.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230-231
- 이영희, 이승신, 박미석 (2010).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활동이 심리적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2, 270-270.
- 이은영 (2006). **취업모의 대리양육 경험분석 - 조모의 손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4). **노인의 상실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 -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441-458.
-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25-341.
- 이화영 (2007).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2, 327-355.
-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 임성숙, 김진숙 (2009). 노인 적응유연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0(4), 1805-1822.
- 임숙빈, 정철순 (2002).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원과 대응행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2), 254-264.
- 전영자 (2015). 노인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

- 효과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219-236.
- 전혜정, 조규영, 박민경, 한세황 (2013).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 정경희 (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29-40.
- 정미경 (2010). **노년기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상실경험과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이규미 (2010).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낙관주의 및 적응유연성의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30**(2), 629-642.
- 정미라, 이방실, 강수경 (2015). 영유아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 및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2), 319-336.
- 정순돌 (2007).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36**, 201-219.
- 정인과, 곽동일, 신동균, 이민수, 이현수, 김진영 (1997). 노인우울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6**(1), 103-112.
-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 (1997).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표준화 연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1), 61-72.
- 정재원, 김문정 (2010).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조가원 (2002). **편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자, 김병석 (2014). 노년기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우울, 자기효능감, 마인풀니스(mindfulness)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4(1), 49-71.
- 조운주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21.
- 조은향 (2009).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숙 (2013). 중,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생애학회지**, 3(2), 1-19.
- 최서규 (2015).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 활동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 차승연 (2013).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0(3), 183-206.
- 최인희 (2014). 손자녀 돌봄이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돌봄에 대한 자발성과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4), 118-138.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해경 (2006).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15-142.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 통계.
-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Abidin, R. R. (1982). Parenting Stress and the Utilization of Pediatric Services, *Children's Health Care*, 11(2), 70-72.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Ahern, Nancy R., Kiehl, Ermalynn M., Sole, Mary Lou, and Byers, Baker, L. A., and M. Silverstein. (2008). Depressive Symptoms amo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multiple rol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6*(3), 285–304.
- Becker, G.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Schilling, E. A. (1989). Effects of daily stress on negative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808.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303–311*.
- Bunch, S. G., Eastman, B. J., and Griffin, L. W. (2007). Examining the Perception of Grandparents who Parent in Formal and Informal

- Kinship Car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5(4), 93–10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rummy, D. B. (2000). Resilience: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widowers following the death of a spouse. 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 Goodman, C. C. (2003). Intergenerational triads in grandparent-headed

- d famil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5), S281–S289.
- Gore, S., & Eckenrode, J. (1994).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Haggerty, L.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9–6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ilton, V., & Waburton, D. M. (1979). *Human stress and cogni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Harrison, K. A., Richman, G. S., & Vittimberga, G. L. (2000). Parental stress in grandparents versus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Issues*, 21(2), 262–270.
- Havighurst, R. J.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 of Press.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Boston, MA: Addison–Wesley.
- Johnson, J. H., & Sarason, I. G. (1979). Moderator Variables in Life Stress Research (No. SCS–LS–007). WASHINGTON UNIV SEATTLE DEPT OF PSYCHOLOGY.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2), 206–216.
- Kelley, S. D., Whitley, D.,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p

- 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11–321.
- Kelly, S. J., & Dam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20(6), 326–332.
- Kozma, A., & Stones, M. J.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 *Journal of Gerontology*, 35(6), 906–912.
- Krause, N. (1997). Anticipat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economic stres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2(6), 284–29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김정희 역). 서울: 대광문화사. (원서 1984년 발행).
- Leder, S., Grinstead, L. N., & Torres, E. (2007).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Family Nursing*, 13(3), 333–352.
- Lundman, B., Strandberg, G., Eisemann, M., Gustafson, Y., & Brulin, C. (200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Resilience Scal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1(2), 229–237.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Research on

- resilience: Response to commentaries. *Child development*, 71(3), 573–575.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
- McQuaide, S. (2000). Women's resilience at midlife: What is it? How do you mobilize it. *Resiliency enhancement: Putting the strengths perspective into social work practice*, 70–82.
- Musil, C.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55.
- Musil, C. M., & Ahmad, M. (2002). Health of grandmothers: a comparison by caregiver statu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1), 96–121.
- Neugarten, B. L., Moore, J. W., & Lowe, J. C.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6), 710–717.
- Olsson, C. A., Bond, S., Burns, J.,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 Palmore, E., & Kivett, V. (1977).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3), 311–316.
- Peikes, D. (2000). *Successful Aging Factors that Promote Resiliency*

in At-Risk Individuals. Mathematica Policy Research.

- Pruchno, R. A., & McKenney, D. (2002).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Examination of a Two-Factor Mode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5), p444-p452.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 Grandparenthood: Factors influencing frequency of grandparent-grandchildren contact and grandparent role satisfactio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1), S9-S16.
- Sands, R. G., & Goldberg-Glen, R.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Sandler, I. N., & Lakey, B. (1982).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the role of control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1), 65-80.
- Seltzer, M. (1976). Suggestions for the examination of time-disordered relationships. *Time, roles and self in old age*, 111-125.
- Selye.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 Graw-Hill : 118-127.
- Szinovacz, M. E., DeViney, S., & Atkinson, M. P. (1999). Effects of surrogate parenting on grandparents'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6), S376-S388.
- Th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4), 341–362.
- Wagnild, G. M. (2011). *The resilience scale user's guide: For the U S English version of the Resilience Scale and the 14-item Resilience Scale (RS-14)*. P. E. Guinn(Ed.). Resilience center.
- Wagnild, G., & Young, H. M. (1990). Resilience among older wom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2(4), 252–255.
- Wagnild, G. M., &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5–178.
- Windle, G., Markland, D. A., & Woods, R. T. (2008).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model of psychological resilience in older age. *Ageing and Mental Health*, 12(3), 285–297.
- Zimet, G., Dahlem, N., Zimet, S., & Farley, G.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who take care of grandchildren

Sooyeon, Bae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s of resilience set internal protection factor and Social support set external protection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mother who take care of grandchildren.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140 grandmothers who take care of grandchildren aged from 1 to 7 in Seoul and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Resilience Scale-14, Social support scale, Life Satisfaction scale, demographic factor of grandmother and a grandchildren-rearing Characteristic. The data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post-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by using SPS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t t-tests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examin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demographical factors of grandmother and a grandchildren-rearing Characteristic.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ome differences

Second,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four variable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and bot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Third, to examine how resilience moderates the parenting stress on life satisfactio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Results revealed that no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was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Fourth, to examine how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parenting stress on life satisfactio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serv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providing social support decrease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duced by parenting stress of grandmothers who take care of grandchildren.

Keywords: Parenting Stress of grandmothers, resilience,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부록 목차

부록 1.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부록 2. 자아탄력성 척도

부록 3. 사회적 지지 척도

부록 4. 생활만족도 척도

부록 5. 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손자녀 양육 특성

부록 1.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때, 손자녀에 대해 염려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각 문항을 보시고 당신과 당신의 손자녀에 대해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손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조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1	2	3	4	5
4. 손자녀가 생긴 이래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1	2	3	4	5
5. 손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찝찝하다	1	2	3	4	5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1	2	3	4	5
8. 손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남편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1	2	3	4	5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10. 모임에 갔을 때, 나는 대개 즐거울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11. 사람들에게 대해 예전만큼 관심이 없다	1	2	3	4	5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 손자녀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대부분의 경우 우리 손자녀는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15. 우리 손자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	2	3	4	5
16. 내가 우리 손자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17. 손자녀는 놀 때 대개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1	2	3	4	5
18. 손자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19. 손자녀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0. 손자녀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한다.	1	2	3	4	5
21. 우리 손자녀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	2	3	4	5
22. 내가 느끼기에 나는 ① 매우 좋은 할머니이다 ② 보통 할머니 보다 조금 낮다 ③ 보통 할머니이다 ④ 할머니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⑤ 할머니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1	2	3	4	5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손자녀에게 더 친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던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24. 가끔씩 손자녀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1	2	3	4	5
25. 우리 손자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1	2	3	4	5
26. 우리 손자녀는 잠에서 깨어나면 대개 보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우리 손자녀는 매우 기분파이며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28. 우리 손자녀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1	2	3	4	5
29. 우리 손자녀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30. 우리 손자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한다	1	2	3	4	5
31. 우리 손자녀의 수면과 식사습관 길들이기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1	2	3	4	5
32. 나는 우리 손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이 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 ④ 생각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낀다 ③ 생각한 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② 생각보다 다소 쉽다고 느낀다 ①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1	2	3	4	5
33. 손자녀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 그 수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① 1 - 3 개 ② 4 - 5 개 ③ 6 - 7 개 ④ 8 - 9 개 ⑤ 10개 이상	1	2	3	4	5
34. 우리 손자는 정말로 나를 몹시 괴롭히는 어떤 일들을 한다	1	2	3	4	5
35. 우리 손자녀는 기대와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2	3	4	5
36. 우리 손자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1	2	3	4	5

부록 2. 자아탄력성 척도

※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1	2	3	4	5	6	7	
1. 나는 내 삶을 어떻게든 잘 헤쳐 나가는 편이다.	1	2	3	4	5	6	7
2.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6	7
3. 나는 대체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내 자신이 좋다	1	2	3	4	5	6	7
5.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6. 나는 결단력이 있다.	1	2	3	4	5	6	7
7. 나는 예전에 힘든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자제력이 있다.	1	2	3	4	5	6	7
9. 나는 세상일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6	7
10. 나는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편이다.	1	2	3	4	5	6	7
11. 나는 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다.	1	2	3	4	5	6	7
12. 나는 위급할 때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6	7
13.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1	2	3	4	5	6	7
14. 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헤쳐 나가는 방법을 잘 찾는 편이다.	1	2	3	4	5	6	7

부록 3. 사회적지지 척도

※ 앞서 응답하신 손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경우, 주위의 사람들(예: 배우자, 자녀, 이웃 등)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들은 필요한 경우 손자녀를 맡아준다.	1	2	3	4	5
2. 이들은 손자녀 때문에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 돈이라도 마련해준다.	1	2	3	4	5
3. 이들은 내가 몸져누워 있거나 너무 바쁠 때 가사나 손자녀 양육을 대신해 준다.	1	2	3	4	5
4. 이들은 손자녀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나에게 그 물건을 (빌려)준다.	1	2	3	4	5
5. 이들은 손자녀를 키울 때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다.	1	2	3	4	5
6. 이들은 손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다.	1	2	3	4	5
7. 이들은 내가 손자녀를 키우는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	1	2	3	4	5
8. 이들은 내가 손자녀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	1	2	3	4	5
9. 이들은 내가 손자녀 문제로 기분이 언짢았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이들은 손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임을 알아준다.	1	2	3	4	5

부록 4. 삶의 만족도 척도

※ 다음 아래에 있는 글들을 읽고 평소에 귀하가 본인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나는 요즘 하늘을 나를 것처럼 기분이 좋다	1	2	3
2. 나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원기가 왕성하다.	1	2	3
3.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1	2	3
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5.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데 대하여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1	2	3
6. 나는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언짢다.	1	2	3
7. 일생을 거의 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게 된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다.	1	2	3
8.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1	2	3
9. 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	2	3
1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1	2	3
11.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12. 지나온 평생을 회고해 볼 때, 나의 일생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1	2	3
13.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이 더욱 흥미가 있다.	1	2	3
14. 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1	2	3
15.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1	2	3
16.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	2	3
17. 나는 현재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1	2	3
18. 나의 일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처량하고 울적한 때이다.	1	2	3
19. 내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지루하고 단조롭다.	1	2	3
20.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뜻대로 안되는 것 같다.	1	2	3

부록 5. 일반적 특성

※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님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는 7세 이하의 손자녀를 자녀세대의 지원을 받아 돌보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 라고 응답하신 분만 다음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답해주세요.

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무학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전문대 이상 졸

3.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한 편입니까?

①좋은 편 ②보통 ③나쁜 편

4.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소입은 얼마입니까? (양육수고비 제외)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이상

5. 귀하 외에도 손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지원 인력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입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배우자 ②가사 도우미 ③친인척 ④사돈 ⑤기타 (자세히: _____)